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2년 10~11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중·저소득국 백신 생산인력 2차 교육 실시한다

– 한국·세계보건기구·국제백신연구소, 3주간 272명 품질관리 교육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31일(월) 오전 10시 입교식을 시작으로 중·저소득 국가(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LMICs) 33개국의 백신 생산인력 230명과 국내 교육생 42명에게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후 실시하는 두 번째 교육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안산 교육장에서 3주간 진행된다.

○ 대한민국은 지난 7월에 2주간, 25개국 138명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 또한 2차 교육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공동명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중·저소득국의 고통 해소를 목표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개발·보급을 위해 1997년 설립된, 본부를 한국에 둔 최초의 국제기구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 내용〉

■ 지난 7월 교육이 백신·의약품 개발, 생산, 허가 등 전주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교육이었다면, 이번 교육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생물안전(Bio-safety)를 비롯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비임상 시험관리기준(GLP)등 품질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Good Clinical Practice,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 Good Laboratiory Practice, 의약품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 Good Clinical Laboratiory Practice, 임상시험 검체 분석 관리기준

☞ 의약품 생산, 허가와 관련된 이러한 기준들은 약의 치료 효과를 구현(유효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안전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들로, 주로 국내 식약처와 같은 각국의 규제기관에서 관장함

○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위한 설비, 원자재, 제조, 포장 등 생산공정 전반에 걸친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을 배우게 된다.

○ 또한, 이번 교육은 품질관리에 대한 기본적 이론뿐만 아니라, 그룹별 사례연구(Case Study), 국내 백신·바이오의약품 기업들과의 관계 형성 프로그램(Convention) 및 생산시설 현장 견학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3주간 총 120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 지난 7월 실시한 백신 생산공정 기본교육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 교육생들의 뜨거운 열의와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의 만족도 평가 결과, 평균 4.5점으로 나타남

- 실제로 지난 7월 LG화학 재직 중 연구원 자격으로 교육에 참여했던 한 교육생은 “현업에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백신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는 흔치 않다”며, 많은 국가의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와 교육 내용을 주요 만족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 또한, ‘바이오백신 나이지리아’사의 에베레스트 오킥푸(Everest Okeakpu) 프로젝트 매니저는 “아프리카는 백신을 생산하고 보관할 여건이 안돼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프리카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허브가 추진되고 있어, 배운 지식을 우리의 계획에 통합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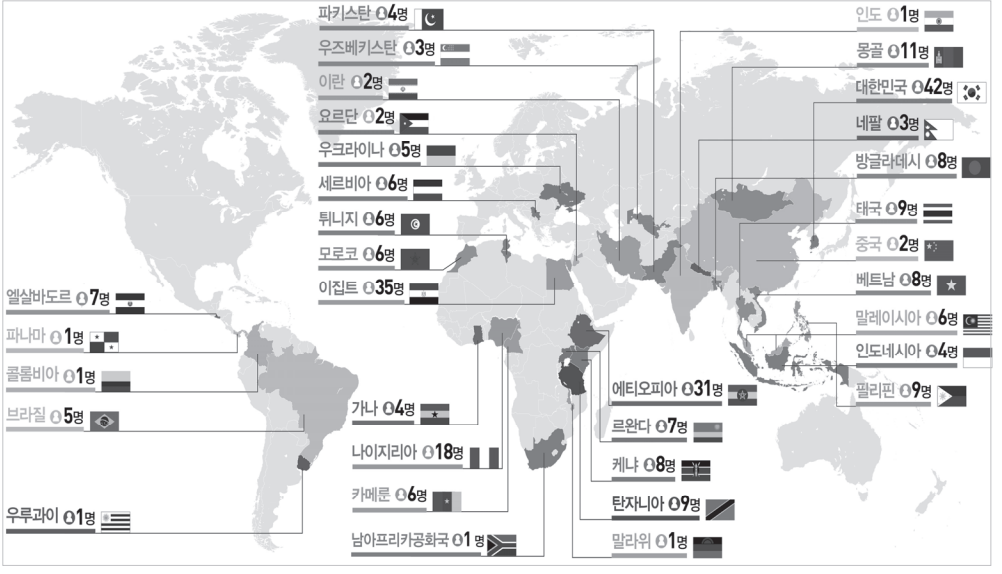
〈참여 교육생 현황〉

■ 이번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중·저소득 국가 재외공관과 주한 외국대사관, 국제백신연구소, 세계보건기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되었으며, 신청서는 국제백신연구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접수되었다.

○ 교육참여자는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바이오의약품 관련 공·사기업 및 정부·공공기관 재직자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와 논의를 거쳐 총 230명을 선발하였다.

○ 3주간의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자국의 관련 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백신 생산 현장 등에 투입되거나 생산기반 구축, 연구·교육, 백신 보급 등에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10.31~11.18) 대상자 현황(총 230명)】



〈입교식〉

■ 이번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입교식이 10월 31일(월) 10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연수동&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한 데 이어, 교육 전반에 걸쳐 협력한 세계보건기구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바이오 인력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민·관 기구들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 보건복지부 김현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도 현장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운영하는 국가로서 전 세계 백신·의약품 생산인력을 양성하여 팬데믹과 싸울 큰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며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국제백신연구소 제롬 김 사무총장은 "품질관리 과정은 중·저개발국가의 필수적인 바이오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시행된 '기본교육'을 보완하고 심화한다"면서, "국제백신연구소는 한국의 우수한 바이오 역량 및 교육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수준높은 품질관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중·저소득국가의 백신·바이오의약품 현지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감염병혁신연합(CEPI),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MGF) 등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들도 영상을 통한 특별강연으로 이번 인력양성 교육에 동참하였다.

〈향후계획: 국제기구 등과 협력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 정부는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실습교육을 확대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바이오 인력양성 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올해 진행하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의 백신·의약품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기본교육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알차게 꾸며 교육생들의 역량 제고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MG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전 세계적 및 지역적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다.

○ 특히, 국내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생들의 백신·의약품 생산역량 제고를 위한 실습교육(Hands-on training)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다.

참고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 개요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WHO 글로벌 인력양성 허브」지정('22.2.23)에 따라 한국의 우수한 생산기술과 교육시설을 바탕으로, 중·저소득국(LMICs) 백신·바이오의약품 인력양성을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 국제백신연구소(IVI)*(교육운영)

* (IVI) 유엔개발계획(UNCP)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서울대 연구공원내 소재)

○ (사업내용) mRNA 기술이전 국가 및 LMICs(백신 생산시설 보유국)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 관련 기본교육 실시((1차) '22.7월 / (2차) '22.10~11월)

■ 추진경과

○ WHO,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지정('22.2.23.)

○ 보조사업자로 국제백신연구소(IVI) 선정('22.2.11.)

○ WHO 인력양성허브 담당 인력 한국방문, 교육시설 견학('22.6.21.~24.)

○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실시('22.7.18~29, 2주간)

* 총 138명 (국외) 24개국 106명, (국내) 32명

○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온라인 교육 실시('22.9.26~30, 1주간/ 20시간)

■ 향후 계획

○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실시('22.10.31~11.18., 3주간)

- 식약처의 허가 및 관리기준에 따른 생산 설비, 원자재, 제조, 포장 등 생산공정 전반에 걸친 인증기준 등(국내 백신·의약품 인프라 견학 포함)

* 총 272명 선발 완료 (국외) 33개국 230명, (국내) 42명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904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2022.10.30.

Ⅱ 보건복지부-세계보건기구(WHO), 2022 전통의약 국제 학술대회 공동 개최

- 16개국 53명 전문가 참석, 전통의약의 감염병 대응 전략 등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11월 1일(화)부터 11월 2일(수)까지 이틀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2022 국제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주관하고,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후원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 학술대회 주제는 "뉴노멀 시대, 국가 일차보건의료체계에서의 전통의약"으로, 16개국 53명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 본부 통합보건의료서비스국 루디 에거스(Rudi Eggers) 국장이 "세계보건기구의 통합보건의료서비스 및 전통의약 전략"을 주제로, 경희대 한방병원 정희재 원장이 "한의약 감염병 대응 연구 현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 이 밖에 대한한의학회가 진행하는 4개 학술토론회(심포지엄)와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이 진행하는 7개 분과(세션)가 운영됐다.

- 학술토론회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그리스, 우루과이, 멕시코 등 8개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침술과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 시대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필리핀 특별분과에서는 한국과 필리핀의 전통의약 제도를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더 나아가 서태평양지역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양국 및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필리핀 국가사무소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 나머지 분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전통의약 전략, 전통의약 감염병 관리 현황, 공공보건 분야 내 전통의약의 역할, 전통의약 분야의 교육·면허·건강보험 정책, 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확산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표준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어떤 질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보편적인 표준 진료행위(진료방법, 절차 등)를 제시하는 지침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 “특히 각국 전통의약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통해 코로나19가 초래한 뉴노멀 시대 전통의약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19911.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2022.11.01.

Ⅲ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본격 운영

–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1.4.) –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4일(금) 오후 2시 30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 동 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운영되며, 국민연금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계산위원회와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된다.

■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박영석 교수를 위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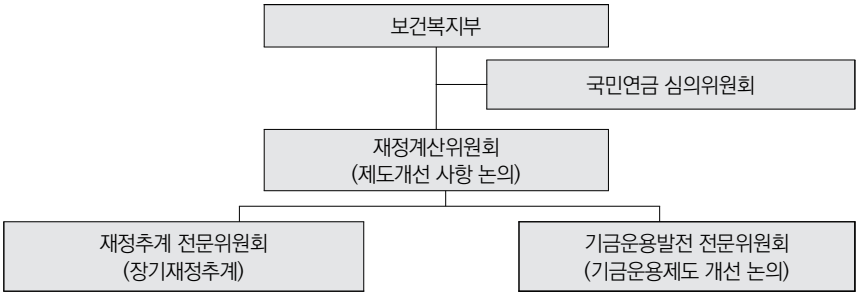
○ 위원회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되며,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의 역할 및 기금운용 목표 수립 등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향에 관한 논의

를 담당한다.

○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사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에 앞서 2022년 8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



○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주요 핵심 변수인 인구·거시경제변수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변수 전망 방법론 및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이에 따라 장기재정전망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위원회 간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추진하여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을 검토하고, 기금수익률 관련 장기재정전망 시나리오에 반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중심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92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2022.11.04.

Ⅳ ‘장애 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지난 11월 11일(금) 14시 30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장애 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개편’, ‘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개편’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보육교사의 자격·양성·교육·권리보호 등 분야별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29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5차례의 전문가 이어가기(릴레이) 간담회 중 3차와 4차 간담회를 통합하여 개최한 것이다.

○ 1차 간담회는 “보육교사의 권리존중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차 간담회는 “보육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1차) 보육의 핵심, 보육교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차)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이번 간담회는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개편(제3차)”과 “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및 과정 개편(제4차)”에 대하여 주제 발표 및 토론자(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 첫 번째 발제는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윤희 교수가 ‘장애영유아 담당보육교사 자격, 배치 등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해,

○ 두 번째 발제는 단국대학교 특수대학원 배성현 교수가 ‘발달지연 아동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담당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 마지막으로 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정효정 교수가 ‘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및 교육과정 현황,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 이어서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 수성대학교 김이영 교수, 서경대학교 민미희 교수, 솔비타 어린이집 이미정 원장 등 6명의 패널 토론자가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개편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개편에 대해 토론했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체계를 만들어가도록 개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배금주 국장은 "본 간담회를 바탕으로 모든 영유아들이 동등한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 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육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보육교직원이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개발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942.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2.11.11.

V 금연상담사 맞춤형 금연상담을 위한 지침서 나왔다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지침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금연상담사를 위한 금연상담지침서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을 발간했다.

*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 등

○ 이번 금연상담지침서는 금연상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금연상담사의 상담 역량을 높이고, 흡연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연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 또한, 지침서 발간은 금연상담전화 사업의 상담프로그램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 및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 www.nosmokeguide.go.kr)사업을 2022년 1월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로 이관함

■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은 금연상담사가 체계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상담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증된 금연 콘텐츠를 수록하고 있다.

○ 특히 대상자별(남성 흡연자, 여성 흡연자, 청소년 흡연자 등) 맞춤형 금연상담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 예시를 제공한다.

○ 또한, 금연 실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행동 요법과 50여 종의 시청각 자료, 근거 기반의 금연 관련 정보, 10여 건의 설문 평가도구, 금연상식 퀴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록해, 금연상담 현장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이번 금연상담지침서는 전국 보건소 및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300여 개 기관에 책자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go.kr) 및 금연두드림(https://nosmk.khealth.or.kr/nsk/) 누리집에서 전자책(e-book)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월부터 지역금연지원센터와 금연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시작으로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며, 유튜브 '금연길라잡이' 채널을 통해 지침서 활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금연상담의 대상이 다양한 만큼 현장에서 맞춤형 금연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침서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라며,

○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이 금연상담사의 상담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금연상담사는 상담 대상자인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침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 “이번 금연상담지침서를 통해 금연상담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임신 여성, 감정노동자, 고도 흡연자 등 특수군을 위한 금연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1994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2022.11.11.